

난임 극복

의지에서 시작된다

WRITER



한세열
일산차병원 난임센터
센터장

나이에 비례하는 난임 비율

“선생님, 오늘 저 아들 낳았어요.” 느닷없이 걸려 온 한 통의 전화에 잠시 고개를 가우뚱하다 이내 만 47세 중년의 임신부 A씨가 떠올랐다. 9년 전 결혼하여 아기를 갖기 위해 노력했지만 난임으로 힘든 시간을 견뎠던 A씨의 출산소식인 만큼 반가운 마음이 더욱 컸다. 사실, 50세를 앞둔 나이의 임신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다. 한국인의 폐경 나이가 평균 49.8세인 것을 감안하면 그 나이에 임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말할 수 있다. 혹여 어렵게 임신이 되어도 태아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거나 유산으로 이어질 확률이 평균 출산연령 산모에 비해 높아진다. 때문에 난임을 극복하기 위해 오랜 시간 함께 노력해온 의료진이라면 산모와 아기의 상태를 더욱 자세히 관찰하며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 축복받아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냥 낙관만 할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병원을 찾은 의지를 실망으로 되돌려 줄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태아를 위한 다양한 검사 진행

전화로 출산의 기쁨을 전해온 A씨 부부도 당초 임신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양한 검사를 진행해본 결과 난소의 기능은 폐경에 가까운 상태였고, 남편의 항암치료 전 냉동 보관한 정자 상태 또한 기능에 적잖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우, 부부의 의지와 선택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데, 아이를 갖고 싶다는 A씨 부부의 의지는 누구보다 확고했고 간절했다. 부부의 바람대로 체외수정술(시험관아기)을 이용하여 임신을 시도키로 했다. 힘든 과정이 기다리고 있고 그 노력에 뒤따르는 결과도 장담할 수 없지만, 부부의 간절한 바람과 의지에 감동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노라 약속했다.

두 차례의 난자 채취로 확보한 난자와 해동 정자의 활성화 및 미세수정술을 통해 얻어진 5개의 냉동배아를 이용해 착상을 시도했

다. 내막을 준비한 후 냉동배아를 해동, 착상 전 유전자진단법을 이용하여 배아의 정상 유전인자 여부를 확인했고, 정상 유전인자를 가진 것으로 확인된 배아를 이식해 결국 임신에 성공했다. 그리고 10개월이 지난 오늘,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다는 산모의 기쁜 전화를 받게 된 것이다.

간절한 바람과 의지

1년 이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난임 부부의 비율은 15% 이상이라고 학계에 보고되고 있다. 최근 결혼 연령이 점점 높아지는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 난임 부부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맞물려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체외수정술과 같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부의 수와 시술 연령도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체외수정술을 통해 임신을 시도하는 대상 중 40세 이상이 35% 이상을 차지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분이, 특히 연령이 높은 분이 위 사례처럼 좋은 결과를 맞이하는 것만은 아니다. 난소기능은 40세를 기준으로 저하되기 시작하고 이 시기가 지나면 비정상적 난자가 배란될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임신 자체도 어렵지만 임신이 되더라도 40% 이상의 유산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임신을 향한 노력은 그 나이가 어릴수록 그 결실 또한 풍요로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부부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임신에 성공한다. 의학적 도움에 앞서 더욱 중요한 것은 아이를 갖고자 하는 부부의 바람과 의지다. 아무리 뛰어난 의료 기술도 부부의 간절함을 앞서지 못한다. 의료진 역시 부부의 간절함과 동의가 있어야 각고의 노력을 이어나갈 수 있다. 난임 극복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많은 의료진이 있음을 기억하고 더디더라도 결국 축복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길 바란다. 부부의 소망이 열매를 맺고 예쁜 희망의 꽃으로 피어나기를 기대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